

서울캠퍼스



① 경동 약령시장: 경동약령시장은 조선 태조때부터 1895년까지 구로사업과 구술사업 등을 벌인 옛 '보제원'이 있던 곳이다. 1960년대부터 중부



② 선농단: 선농단은 일찍이 인류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신농씨와 후작씨를 주신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다. 선농의 기원은 멀리 신라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태조이래 역대 임금들이 이곳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선농제를 지냈다.

버스터미널과 청량리역이 가까운 이곳에 강원, 충청, 경기 지방의 약초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곳은 전국 한약재의 70% 이상이 유통되며 한약재의 가격도 저렴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현대판 약령시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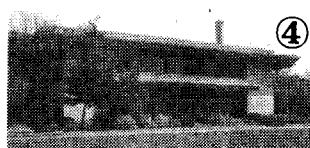
왕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가는 제도는 1909년(융희3년)에 폐지되었으나, 고창의 풍요와 번영을 비는 주민들의 마음으로 최근에는 해마다 선농제가 다시 열리고 있다. (설령탕의 유래: 태조 이성계는 등극한 다음해에 가뭄이 극심해지자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 때 각 도에서 참석한 백성들을 위하여 소를 잡아 삶은 음식을 떡배기에 한그릇씩 담고 각뚜기를 넣어 먹게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설령탕의 유래이다. 선농단에서 비롯되어 '선농단', '선농탕', '설령탕'으로 이름이 변천했다.)

대학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지나간 일주일! 학교주변을 거닐면서 무심코 스쳐 지나간 곳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간다. 아, 저기는 뭐하는 곳일까? 하는 생각들. 우리 주변의 가볼만한 곳을 살펴본다.

〈편집자〉



③ 연화사: 연화사는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를 회룡으로 승격시키면서 능의 원



④ 세종대왕기념관: 세종의 유



⑤ 영취원: 고종의 후궁인 귀비 엄씨의 묘소인 영취원과 영왕의 딸인 진의 묘소인



⑥ 장안고미술상가: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취급하는 전문상가

찰로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절 이름은 "일체 중생의 근본 자성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는 의미에서 연화사라 하였다. 현 건물은 1882년 임오군란 때 불타던 것을 증건한 것이며 해방후 보수공사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품과 서적을 전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민족문화추진위원회가 입주하여 세종실록 등 많은 고전을 국역 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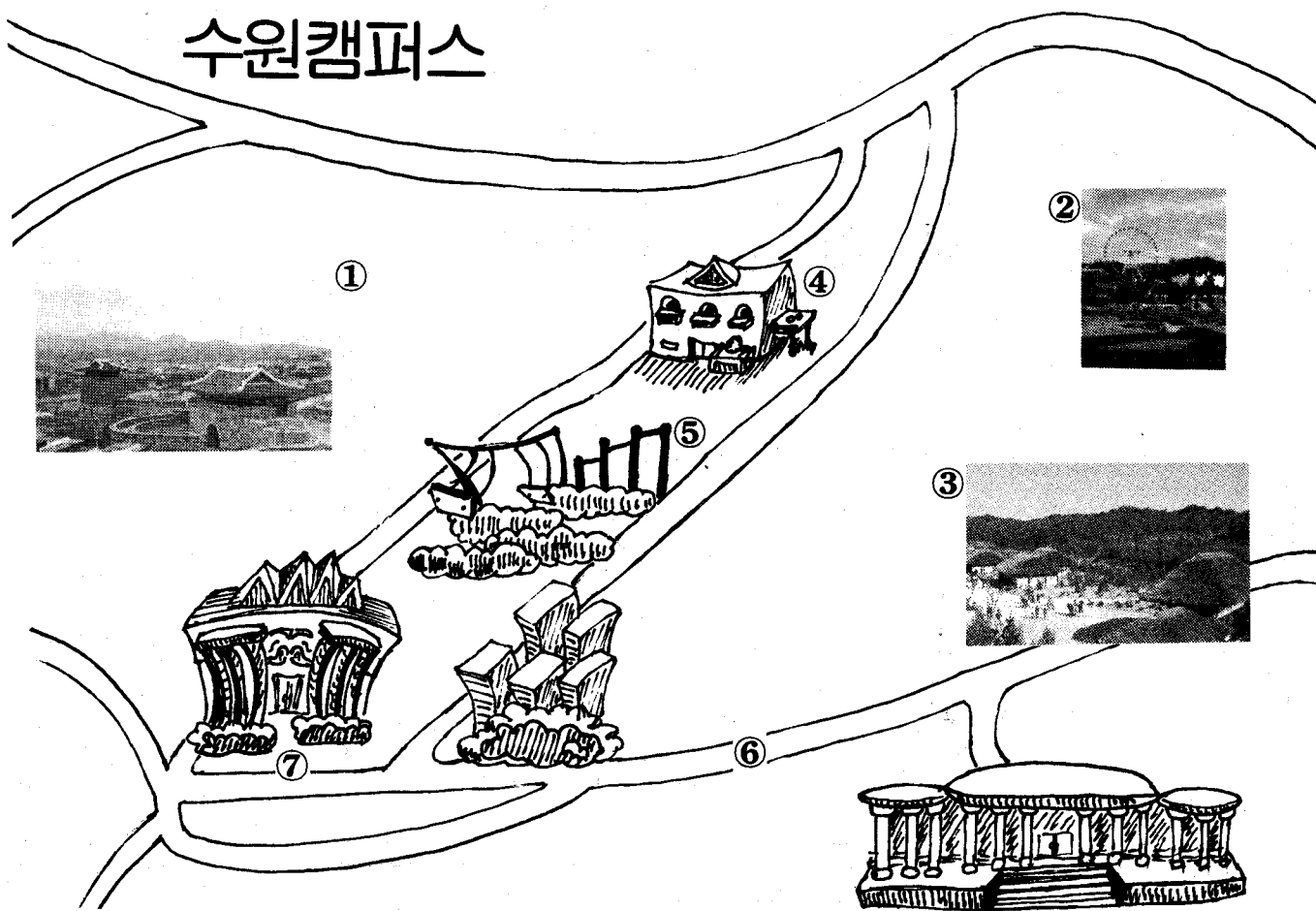
승인원이 1만7천여명에 달하는 부지에 조성되어 있다. 원래 이 묘역은 명성황후 민씨의 육묘인 홍릉이었으나 1919년 2월 육묘가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으로 이전되면서 옛 홍릉은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명칭도 영취원으로 바뀌었다.

가 하나씩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시장이 형성됐다. 현재 100여개의 고미술상점이 자리하고 있으며, 공산품에 밀려 자취를 감추는 절구, 뒤주, 화로 등 생활용품 및 돌조각품, 목작품, 도자기, 고서화 등 예술품이 취급되고 있다.

□신입생을 위한 지역안내

우리학교 주변엔 뭐가 있을까?

수원캠퍼스



① 수원성곽

수원성은 정조대왕이 당쟁의 화를 입고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키 위해 조선 정조20년(1796년) 수원 남쪽에 화성시 축성되었다.

이 성은 다산 정약용의 토성과 석성의 취약점을 보완한 설계로 근대적인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많이 파손된 성곽은 1978년 복원, 현재에 이르렀다.

② 에버랜드

1976년 개장한 용인자연농원이 1996년에 에버랜드로 다시 탄생하여 종합레저단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가지 놀이기구와 식물원, 동물원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가족단위의 나들이나 주말데이트를 즐기기에 좋다. 현재 이곳은 세계 8대 테마파크로 선정되었다.

③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1km, 경부고속도로 수원IC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의 농가와 생활양식, 당시의 관가 등을 비롯하여 대장간, 도요굴, 글방, 떡전, 양반저택 등의 옛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한편 놀이시설로는 조랑말을 탈 수 있는 승마장과 그네, 회전목마 등이 있다.

④ 대형상업시설

국내의 최고형 할인매장이 영동지구에 들어설 전망이다. 그랜드마트, 뉴코아 등 국내업체는 물론 프랑스 '까르푸', 네덜란드 '마크로' 등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까지 진출한다. 지상 6층, 지하 6층 규모의 그랜드마트는 99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지상 16층, 지하 6층의 뉴캐리리소

⑤ 공원

근린공원: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3만1천5백평방미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된다. 근린공원에는 일반 공원 기능 외에도 교육 기능과 자연보호 기능이 부가된다.

교통공원: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통습관을 길러줄 교통공원은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공원에는 전차시물레이선 게임이 가능한 실내교육장, 횡단보도와 교차로로 구성된 모의 시가지, 주위 등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동차추돌시험장, 자전거 주행의 이론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자전거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공원 내에 조정시설과 휴식녹지도 갖춰 연간 8만4천8백여 명의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교통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에코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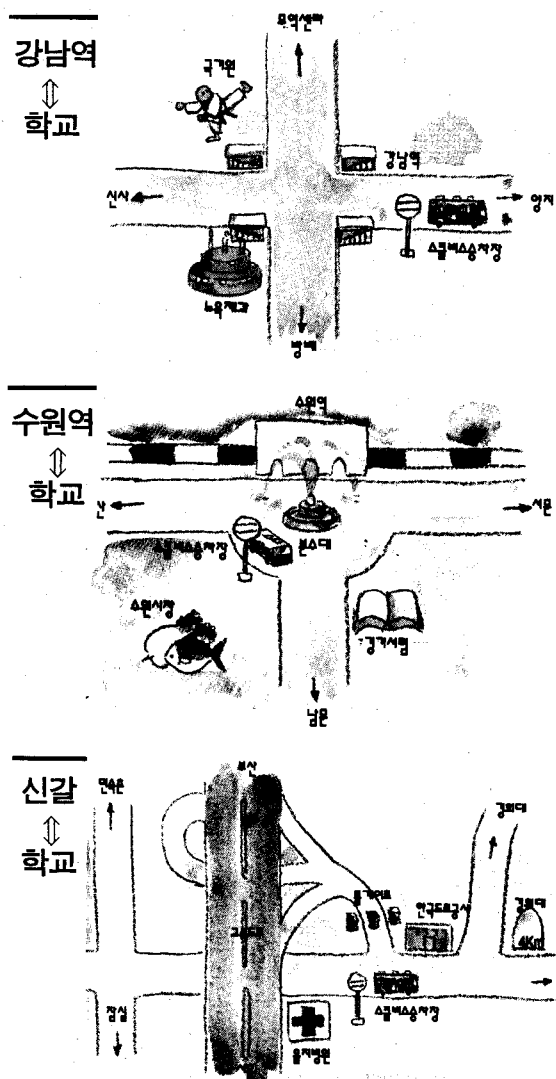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에코패스 설치

⑦ 나무종합시장

임업협동조합 경기도지회가 위탁운영하는 나무종합시장은 3천여평 규모의 농지에 유실수와 관상수, 산림수 1백여종 1백여만그루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좋은 품질의 각종 묘목을 시중에 비해 20~30%정도의 싼값으로 판매한다.

수원영동지구 입구에 위치한 나무시장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어 식수철이 끝나는 오는 4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캠퍼스 교통편 안내



노선번호	경유지
7-5	영통회차장-학교앞-영통파출소-권선중사거리-수원역-수지A-모란역-상대원
62	파장동-장안문-수원역-권선구청-태평양화화-학교앞-신갈
92-1	이목동-화서역-수원역-망포동-영통파출소-학교앞-영통회차장
333	영통회차장-학교앞-영통파출소-동수원사거리-운동장-의왕-시흥-서울대앞
900	영통회차장-학교앞-영통파출소-권선중사거리-세류사거리-수원역-장안문-운동장-구로공단역
64	영통회차장-학교앞-영통파출소-성빈센트병원-팔달문-장안문-의왕-안양대교
경일여객	학교앞-신갈-고속도로경유-양재-남부터미널
1550	학교앞-신갈-풍덕천-수지-양재
1550-1	학교앞-신갈-풍덕천-수지-양재-강남
550	학교앞-신갈-풍덕천-수지-양재-강남
1002	학교앞-신갈-풍덕천-수지-가락시장-잠실
100-2	학교앞-신갈-풍덕천-수지-가락시장-잠실

□각종 판매물, 이렇게 대처하라

인적사항 알리지 말고

판매원 신분 확인해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강의실이나 교정, 학교주변에서 어 학교재나 테이프, 각종 자격증교재, 통신관련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요타겟은 바로 갓 입학한 새내기들. '공짜로 줄다'라는 식의 구호를 내걸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변쯤은 발돋움해 멈추게 한다. 다음은 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다.

- 학교선배나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며 교재구입을 권유하는 경우
- 동아리가입을 권유하며 가입신청서를 작성케한 후 주소지로 교재를 우송,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안내책자를 무료로 보내준대면서 일방적으로 교재를 우송하는 경우
- 교수추천교재라 허위선전하는 경우
-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자격증교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설문조사나 아르바이트 알선을 이유로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주소지로 교재를 우송하는 경우

그러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적사항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설령 구입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받고 판매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아무런 손해없이 해약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제'가 있다. 해약절차는 청약철회서를 3부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판매원에게 보내면 된다. 작성시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해약사유 등은 꼭 기재해야 한다. 문의전화 한국소비자보호원(3460-3000)이다.

□자취방 계약시 주의할 사항

등기상 하자 확인, 설부른 계약 금액

자취방을 구할때에는 복덕방에 문의하거나 생활정보신문이나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복덕방을 통하는 방법은 직접 구하는 것에 비해 편리하고 안정성이 높지만 전체 계약금액의 0.5%(전세 2천만원의 경우 10만원)에 해당하는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비해 생활정보지나 광고전단을 이용하면 번거롭긴 하지만 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방을 볼 때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가? 수도세 물세 전기요금 등을 주인집과 같이 내는가 따로 내는가?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옆집에 누가 사는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혹탕일 경우는 위층이 너무 세지 않은지, 반지하일 경우에는 옥상 습기가 차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밤늦게 들어올 경우를 대비, 골목에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월세방의 경우에는 주인집의 인실이 후속한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 방을 구하는 경우라면 부담이 되더라도 복덕방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일단 방이 마음에 들었다면 혹시 저장잡힌 집이 아닌가를 확인하자. 등기상의 문제는 해당지역 등기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신의 조건에 맞고 등기상의 문제가 없는 집이라면 이제 계약을 할 차례. 그러나 방이 좋다고 무턱대고 계약을 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처음 계약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일단 이전에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다면 반드시 살던 집이 나간 다음에 방을 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주인이 보증금을 환불해 주어야 하지만 주인이 여유자금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은채 계약을 하고 계약일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매일 위험이 있다. 학교 앞에서 경회부동산을 운영하는 우복형씨는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방이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불리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한다.